본당 소식

♣ 말씀 KEY WORD

- **'의로움'(디카이오쉬네)** : 복음서마다 '의로움'의 뜻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마태오 복음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무엇보다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되돌아감을 뜻하며, 그 회복은 형제를 향해 멈추지 않는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납니다(마태 7,12).

교회란 완벽해서가 아니라, 조금 모자라고 조금 어긋나더라도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 서로를 용서하려 애쓰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세례 자리까지 기꺼이 몸을 낮추심으로써 그 의로움의 여정을 시작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며 서로를 용서하고, 또 얼마나 진실하게 화해의 길을 걷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 회의 / 모임

- 사목 회의 : 오늘 미사 후, 오라토리오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88.80€ • 교무금 000.00€

전례 성가

입당 : 1 (나는 믿나이다)
봉헌 : 220 (생활한 제물)
성체 : 169 (사랑의 성사)
　　170 (자애로운 예수)
파견 : 481 (요르단 강에서)

전례 봉사

이번 주일(1월 11일)	다음 주일(1월 18일)
1독서: 서인복 리노	1독서: 정상현 안토니오
2독서: 류정연 릿타	2독서: 우윤정 마리아
복 사: 정이한 다윗 / 김사빈 엠마	복 사: 강윤아 헬레나 / 강윤이 스텔라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뇨

·총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율리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6년 1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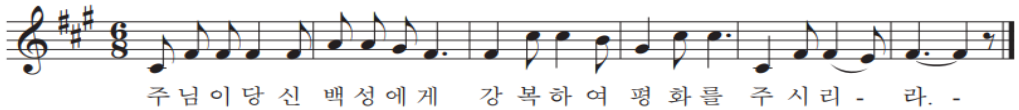
(백) 주님 세례 축일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시어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제1독서 (이사야서 42,1-4.6-7)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1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2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3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4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6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7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 주기 위함이다.'"

제2독서 (사도행전 10,34-38)
그 무렵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35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십니다.
36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37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38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마태오 3,13-17)
13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14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15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16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17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스승이신 주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세상에 주님의 기쁨과 평화를 드러내고 빛과 소금으로서 모범이 되게 하소서.

2.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화해의 주님, 남과 북으로 나누인 저희 민족을 돌보아 주시어, 변화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새롭게 만나고 대화와 타협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3.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주님의 빛을 찾아온 예비 신자들을 돌보시어, 그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을 키우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4.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들에 강복하시어, 기쁨과 즐거움,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하며 주님의 참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오니
저희가 성자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며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